

#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 2026년 4월 뉴스레터 ◆



알렐루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망과 경청, 그리고 사명의 새로운 시기로 이끄십니다. 이번 4월 뉴스레터에는 우리 CLC-USA 공동체가 각 지역과 프런티어에서 서로 기도하고 식별하며 동반하는 다양한 소식들을 담았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은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에 대한 감사와 성찰을 통해 세계 CLC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앵커리지(Anchorage) 공동체는 우리를 더 깊은 시노드적 경청으로 초대합니다. 세계화와 빈곤 프런티어는 오는 4월 20일, 기후 변화와 빈곤, 그리고 세계화의 상호 연결성을 주제로 한 기도 모임을 준비 중이며, 미주리 (Missouri) 공동체들은 기도와 친교를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전국 차원에서는, 이냐시오 영성 프런티어 팀을 이끌어 주신 Mimi Park의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차기 의장 및 상임 위원 후보자들이 봉사로서의 부르심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분쟁 속에서도 회복력을 잃지 않는 Najat Sayegh의 강력한 증언을 통해 CLC 레바논과 연대하며, 보스톤에 모여 기도와 사명 식별에 전념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와도 함께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이 뉴스레터에서 다루는 내용:

지역 국가 행사들과 사도적 소식, 단체별 행사 관련 기사들

# 다가오는 행사들



## 세계화와 빈곤 퇴치

월례 온라인 기도 모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담긴 지향들을 짧게 나눕니다. 이번  
모임은 우리 프런티어의 주제인 평화,  
인간 존엄성, 인종, 이주 및 빈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4월

20

8:00 PM ET

# 세계화와 빈곤 프런티어, 이 둘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세계화와 빈곤 프런티어를 이끄는 새로운 위원으로서, 저는 최근 통합 생태학과 세계화 및 빈곤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을 배우고 체험해 오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지구의 날(Earth Day)'이 곧 다가옵니다. 세계화와 빈곤 프런티어는 통합 생태학 프런티어와 함께 **기후, 빈곤, 그리고 세계화의 상호연결성**에 초점을 맞춘 월례 기도 모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단 3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기도에 꼭 함께해 주십시오.

**4월 온라인 기도 :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

**2026년 4월 20일**

**8:00-8:30 pm 동부 표준시 기준**

CLC웹사이트 내 Zoom링크 :

<https://clc-usa.com/globalization-poverty>

세계화, 빈곤, 그리고 통합 생태학은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과 지구를 더 잘 돌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합 생태학은 우리가 이러한 연결성을 분명하게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지구의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기업, 정부, 그리고 개인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임금 지불,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오염 줄이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에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구를 해치는 행위가 종종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이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작은 실천들 - 예를 들어 쓰레기 줄이기, 윤리적 제품 구매하기, 자원 나누기,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기, 또는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배우기- 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피조물 모두를 아끼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더 정의롭고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결국 세계화는 단순히 시장과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통합 생태학의 원칙을 따른다면, 세계화는 선을 위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ne Papinchak

# 19번 영신수련 (19<sup>th</sup> Annotation of the Spiritual Exercises)

친애하는 CLC 회원 여러분께,

미국 CLC 리더십 및 양성 팀은 다시 한 번 '19번 영신수련(19th Annotation of the Spiritual Exercises)'을 제공합니다. 이번 피정은 2026년 8월에 시작하여 2027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영신수련 전 과정을 완수하고자 하는 모든 CLC 회원 및 예비 CLC 회원(Pre-CLC)에게 열려 있습니다. 상세 정보와 '와서 보시오(Come and See)' 설명회 일정은 CLC 웹사이트의 메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 <https://clc-usa.com/19th-annotation-program-resources>.

참가 신청 : '와서 보시오(Come and See)'

<https://forms.gle/998rCT1HRsYXqNZu8>

모든 피정자에게는 기도 동반자가 배정되며, 피정자는 본인이 선호하는 언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 선택)로 동반자와 매주 만남을 갖게 됩니다. 또한 피정자들은 소그룹에 소속되어 매달 한 차례 2시간 동안 모임을 갖고, 영신수련에 관한 지도와 삶의 나눔시간을 가집니다. 전체 프로그램 참가비는 \$300이며, 일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9년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 CLC 전국 총회(National Assembly)에서, 우리는 영신수련의 기회를 더 널리 확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미국 CLC 회원들이 19번 영신수련 전 과정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에 세 번째로 이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Sosa 신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주님께 의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사도적 열정과 새로운 생명,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를 갈망합시다." 라고 상기시켜주셨습니다. (2020년 7월 30일, Sosa 신부님 메시지 중)

우리는 모든 회원이 그리스도와 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미국 CLC 의장, Christine Cichello 드림

초청 서신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 한국어 - 베트남어](#)

# CLC-USA 2026년 사도직 지원금 주기 (Ministries Grant Cycle) 발표

## 사도직 지원금이란 무엇인가?

CLC-USA는 2026년 지원 주기를 위해 총 5,000달러의 소규모 기금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의 사명과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지원은 2024년 전국 총회에서 설정된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으로 각 공동체가 제시한 필요와 과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핵심 영역 중 하나 이상에 중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이냐시오 영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삶의 전 과정에 걸친 공동체의 영적 필요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가 보내는 시대의 징표를 읽고, 25~35세 청년과 가족, 그리고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영적 필요에 통찰력 있게 응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예수회 및 기타 이냐시오 (또는 비이냐시오) 단체들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적극 권장됩니다.
2. 35세 이하 청년 공동체 구성원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대학교 CLC의 졸업생들을 지역 및 문화 그룹에 통합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기회와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연령, 지역, 문화적 배경 전반에 걸친 우리의 다양한 공동체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식별과 영신수련을 포함한 CLC 카리스마 안에서의 양성 경험을 창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지난 총회에서 제시된 사명 분야인 가정, 세계화와 빈곤, 청소년과 청년, 생태 분야의 목표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5. 지역 공동체가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 CLC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은 꿈꾸는 시간입니다.** 위의 핵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부름받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과 문화 그룹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오는 은총을 나누며 프로젝트의 결실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지금은 기도하고(PRAY), 꿈꾸고(DREAM), 비전을 그리고(ENVISION), 식별할(DISCERN) 시간입니다!

## 여러분은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까?

**문의사항:** AlYarzebinski, CLC 재무 담당자에게 다음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yarz1@verizon.net](mailto:yarz1@verizon.net)

##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을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안내문은 **5월 15일 NCC로 이메일 발송**

신청 마감은 **6월 30일**

선정 결과 발표는 **7월 15일**입니다.

# 알래스카 앵커리지, 듣고 있습니까?

작성자: Paula Burgen, (알래스카 앵커리지) — 제자(Discipleship), 북서부 순례자들(NW Pilgrims), 노던 라이츠(Northern Lights)

## “시노달 교회를 위한: 친교, 참여, 사명”

CLC로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능동적인 경청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는 경험은 드물며,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더욱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CLC를 넘어, 서로를 적극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경청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까?

교황 프란치스코는 시노달리티에 관한 시노드(Synod on Synodality)를 시작하면서 경청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교황은 교회 안에서 경청을 강화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진행자의 안내 아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평신도의 역할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응답들은 기록되고, 종합되어 교구로 전달되었으며, 교구는 다시 이를 정리해 지역, 국가 대표들에게 보고한 뒤 최종적으로 로마의 국제 시노드 담당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큰 규모의 작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톨릭 신자 중 약 1%만이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 참여를 위축시켰습니다. 시노드가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교구 차원에서 모든 이들이 환영받고 참여하도록 얼마나 장려되었는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가톨릭 신자들은 본당 소식을 읽지 않아 시노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실제로 자신의 의견이 진지하게 경청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 프란치스코의 행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그는 각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평신도, 성직자, 주교, 심지어 일부 학생들까지— 로마로 초청하여 10월 한 달 동안 보고서를 논의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0명씩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논의하고 경청했습니다. 추기경과 학생이 교회 내 여성의 직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10월 말에 이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동료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2024년 10월 두 번째 모임을 위해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모임의 최종 보고서는 “시노달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25년 4월 21일 선종하셨지만, 교황 레오 16세는 그의 뒤를 이어 신자들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노드 사무국 총무처에서 발행한 새로운 문서인 “시노드 실행 단계의 길”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은 각 교구가 본당 평의회와 여러 조직에서 경청의 원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교회를 존재하는 방식 자체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 알래스카 앵커리지, 잘 들리십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시노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으며, 많은 교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CLC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경청하고 또 경청받는 경험—특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구 사무실에 연락하여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본당 신부님께 더 알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받는다면, 경청 모임에 참여하여 조건 없는 적극적 경청의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처음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이 소식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리(MISSOURI)지역 CLC를 통한 삶의 경험 나눔

미주리(MO) 지역 CLC 공동체 다섯 곳의 회원들이 2026년 2월 28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Yvonne DeHart의 자택에 모여 기도와 찬양, 나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Ron Nimer의 '감사의 기도' 중 일부입니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지나온 길과 우리가 배운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해 온 공동체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상황 속을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이 필요한 이 고통받는 세상의 치유를 향한 우리의 마음 깊은 갈망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기도와 개인적인 지향 안에 담아 드리는 이 희망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 은총의 선물: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의 메세지로 살아가기

우리 세계 CLC의 날 행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정신에 따라 작년에 심은 나무까지 함께 걷는 공동체 산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난 나무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우리의 "공동의 집 (**common home**)"을 돌보아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족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씩 가져와 감사의 서클 (Circle of Gratitude)에 모여 아침을 열었습니다. 사진과 이야기, 그리고 진심 어린 추억들을 나누며 우리 CLC 공동체가 어떻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는지를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눔의 시간은 따뜻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주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준비한 영상은 우리의 마음을 엄숙하고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과 강제 이주, 그리고 망명 생활 속에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된 강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었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느님 현존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우리를 온전히 내어맡김과 신뢰,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이야말로 결코 변치 않는 유일한 약속이라는 깨달음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처럼 무엇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성찰하며 그 초대에 응답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순간과 하느님의 현존 안에 우리 자신을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회 David Pantaleon 신부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에 대해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신부님은 명료하고 사목적인 통찰로 총 9장의 내용을 요약하며,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가 사랑과 자비, 그리고 충실함으로 오늘날의 가정들과 동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도덕적 토대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우리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 이번 경험은 참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예수회 Marcelino García 신부님의 집전으로 거행된 미사 중에 세 명의 회원이 유기서약을, 한 명의 회원이 종신서약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우스 플로리다 CLC 공동체에 있어 참으로 복되고 은총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 ◆ 향후 일정

- ◆ **4월 11일** — 로올라 성 이냐시오의 일기 (*Diary of Saint Ignatius of Loyola*): 내면의 영성 생활 식별을 위한 워크숍

**5월 22일 - 24일**—예수회 José Lopez 신부님이 이끄시는 영신수련

#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은총의 선물: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의 메세지로 살아가기



# 차기 의장 및 상임위원 후보자들을 위한 기도

차기 의장(President-Elect)과 상임위원(At-Large Members)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이 완료되어, 모든 후보자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 분별의 시기에, 우리는 CLC-USA 공동체 전체가 기도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기를 청합니다.

이 회원들은 CLC-USA의 필요에 깊이 귀 기울이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봉사로 부르시는지 식별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 그리고 신앙을 우리 공동체의 더 큰 선을 위해 어떻게 내어놓을지 성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식별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깊은 평화 안에 머물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예'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공동 사명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 안에서 그들을 가까이 기억해 주십시오.



## 이냐시오 영성 프런티어 팀 리더 - Mimi Park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냐시오 영성 프런티어 팀 (Ignatian Spirituality Frontier Team)이 결성됨에 따라, 우리는 **Mimi Park**이 보여준 겸손과 인내, 그리고 우리 그룹을 이끌고 있는 한결같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7월 31일 이냐시오 축일 기념 행사(**Feast Day of St. Ignatius Celebration**)에 Mimi와 그녀의 팀을 공식적으로 "파견"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 난민과 함께 걷는 여정: JRS 레바논 지부, 현존과 희망의 사명

예수회 난민 봉사기구(JRS) 레바논 지부는 강제 이주와 경제적 붕괴, 그리고 매일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난민 가족들과 함께하며, 이냐시오 영성의 핵심 가치인 동반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JRS의 현존은 극도로 취약한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교육과 보호, 그리고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순 시기, 전 세계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한결같이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jrs.net/en/country/lebanon/>



# 평화와 전쟁 종식, 폭력 근절을 위한 기도

미국의 CLC로서, 그리고 교황 레오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의 연대 안에서, 우리는 전쟁과 폭력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레바논과 베이루트에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와 예수회 형제자매들을 기도 안에 기억합니다.

**Najat Sayegh —CLC 레바논**  
2026년 3월 14일



레바논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치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서 그것을 논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실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온 세상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타인의 전쟁을 우리 땅에서 견뎌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위급합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회복을 경험한 지 1년여가 지난 후, 2026년 3월 2일,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레바논 국민이 선택한 적도, 원한 적도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깊은 분노와 좌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는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긴급 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가족들은 갈 곳도 모른 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밤중에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차 안이나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연대의 표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도움을 위해 나서고, 공립학교들은 피난민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CLC 역시 자신들에게 허락된 한계 안에서 여러 가정을 돕고 있으며, 가능한 한 필요를 채우고, 무엇보다도 동반과 영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현실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머무르고 그들을 동반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화해와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 평화와 전쟁 종식, 폭력 근절을 위한 기도

레바논 남부 국경에 위치한 한 기독교 마을의 주민들은 – 평화롭고 깊이 뿌리 내려진 자신들의 땅 –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던 본당 사제 **Pierre Al-Rahi** 신부(이름이 아랍어로 '목자'를 의미)는 폭격으로 부상당한 교우들을 돕기 위해 달려가던 중 포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오히려 주민들이 그의 모범을 따르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그를 "항상 자신의 백성과 함께 머물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간 참된 목자"라고 기리셨으며, "그가 흘린 피가 사랑하는 레바논에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마라, 작은 양 떼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희망의 자녀로서 절망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습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낸 뒤에도, 해가 뜨면 일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일터로 나아가고, 사립 학교들은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우리 안에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짐을 지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부활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희망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CLC 회원들의 더 많은 증언을 원하시면, 링크 [here](#)를 통해 다음호 Harvest 소식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이루트에 있는 CLC 사도직인 La Cuisine de Mariam ("Mary's Kitchen")이나, CLC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예수회 난민 봉사단(Jesuit Refugee Services in the Middle East)을 후원하고자 하신다면, Christine Cichello ([chriskampcichello@gmail.com](mailto:chriskampcichello@gmail.com))에게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 상임 위원회 모임을 위한 기도

이번 주말, 우리 상임위원회는 기도와 식별, 그리고 사명 중심의 성찰을 위해 보스톤에 모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깊이 귀기울이며, 우리의 우선 순위를 되돌아보고 성장 부분에 대해 식별하는 한편, 여러 프런티어 그룹과 만나 우리 전국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기도와 위원회로서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 그리고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국 공동체의 걸음을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CLC-USA 공동체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대화를 지혜와 명료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와 일치, 그리고 새로워진 소명으로 그들의 식별에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공동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려는 우리의 헌신을 더욱 깊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함께 하여, 하느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축복하시고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우리 전국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CVX-CLC  
Christian  
Life  
Community  
in USA

# 보호와 자비를 위한 기도

생명과 자비의 하느님,

오늘 저는 원치도 않았고 자초하지도 않았으나 분쟁의 한복판에 갇힌 당신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눈물마저 아시는 주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 헤매는 이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길 바라는 이들 곁에 머물러 주소서.

특히 지금 이 순간 폭격의 굉음 아래 놓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를 지키려 품에 꼭 안은 어머니들,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피난처를 찾는 아버지들,  
할머니와 할아버지, 청년들과 아기들, 그리고 내일의 해가 뜰지 알 수 없어 떨고 있는 모든  
가정을 지켜 주소서.

당신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감싸 주소서.

힘없는 이들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슬피 우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어 주시며,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는 빛이 되어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당신의 평화가 무기의 소음을 뚫고 완고한 마음을 어루만져, 대화와  
정의,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폭력을 멈추게 하소서.

겉으로 드러난 상처와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여 주소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가 타인의 고통에 무뎠지지 않도록 희망을  
새롭게 하소서.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 곁에 머무시어, 따뜻하게 감싸 안은 속삭임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아멘.

